정토마을, 적멸보궁 간월사 극락보전 상량

11월 6일, 극락보전 앞마당서

부처님 정골사리 이운불사 계기
연면적 1661㎡ 규모 총 3층으로
다목적공간, 법당 · 힐링광장 등
준공 예정일은 2022년 1월 31일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불교계 호스피스 활동을 이끌고 있는 울산 정토마을에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간월사가 세워진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11월 6일 3층 간월사 앞마당에서 '정토마을 간월사 극락보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사장 능행 스님의 전법 원력으로 조성되는 간월사는 자재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안식처로 회향될 예정이다.

법요식에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 한국스리랑카 불교원장 완사 스님, 세심사 승인 스님, 학림사 수환 스님, 오봉사 혜원 스님, 정토마을 센터장 지덕 스님, 장익 前 위덕대 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로 티베트 뮤지션 빤빠의 축하무대와 상량의식, 축원, 찬불음성공양 등이 진행됐으며 2부 상량법요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고불 △청법가 △법문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축사 △공사현황보고 △상량식 및 꽃비 뿌리기 △인사말 △사홍서원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는 11월 6일 3층 간월사 앞마당에서 '정토마을 간월사 극락보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다.

혜국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일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간월사 상량법회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인생이 짧은 것을 알아 삶과 죽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사가 원만히 회향하는 그 날까지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장 능행 스님은 "불법을 널리 펼치려는 일념으로 의료와 교육 사업의 장으로 이곳 정토마을에 마하보디 교육원과 자재요양병원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설립했다"며 "이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부처님 정골사리 1과를 기증받아 모시게 돼 정토마을 사부대중들은 간월사 적멸보궁 창건 불사의 뜻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토마을 간월사 건립불사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토마을을 일구어가는 모든 대중들은 정진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스리랑카 불교원장 완사 스님은 "정토마을이 실천하는 부처님의 자비 나눔에 깊이 공감한 스리랑카 정부가 부처님의 사리를 정토마을에 기증했다. 스리랑카 대통령은 직접 이 진신사리 1과를 능행 스님께 전달하며 모든 사람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모셔주시기를 부탁한 바 있다"며 "능행 스님께서는 이 부탁을 잊지 않으시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불사를 시작해 오늘 상량식이 더욱 뜻깊다"고 감회를 말했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는 2016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정골사리 1과를 기증받은 인연으로 적멸보궁 간월사 불사 원력을 세웠다. 2019년에 연면적1661㎡ 규모의 현대건축 양식으로 설계를 마무리 했으며 설계는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김개천 교수가 담당했다.

간월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됐으며 지하 1층은 아미타 부처님을 봉안하는 공경전으로, 염불수행과 기도,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마련된다. 지상 1층은 상락아정으로 영혼을 위한 힐링정원이며 만년위패와 삼천불(원불)을 봉안한다. 지상 2층은 적멸보궁으로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 1과와 티베트 달라이라마와 포탈라궁에서 이운한 사리 2과를 봉안한다. 준공은 2022년 1월 31일 예정이다.

제11회 반야학술상, 김종명 교수 수상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11월 7일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서 '제11회 반야학술상'을 봉행했다.

수상자는 김종명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이다. 김 교수는 불교의례와 전통불교문화를 연구하며 저서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2018),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2013), 〈한국의 세계불교 유산〉(2008),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2001) 등을 발표한바 있다.

시상식은 △개회 △삼귀의례 △인사말 및 축사 △시상 △수상소감 및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명 교수는 "저는 오늘의 이 수상을 학문적 채찍으로 생각하고 정신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욱 더 정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국교수불자, 코로나 이후 불교 방향 모색

11월 5~7일, 2021년 한국교수불자대회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11월 5일~7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불교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송일호 · 이하 교불련)가 11월 5~7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불교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봉행했다.

교불련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불교중흥의 발전방향과 방법, 다양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으며 총 25편의 논문을 8개의 분과로 나눠 발표했다. 발표는 디지털시대에 맞춘 중흥방안 연구와 불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주제와 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생태계 파괴와 불교역할, 불교존상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방안 등 다채로운 주제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학술대회에 앞서 교불련은 개회식에서 입재식을 봉행하며 개최 의의 및 교수불자대회를 도와준 신뇨엔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입재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송일호 교불련 회장의 개회사,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총본부 국제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김성규 명예회장의 활동 및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송일호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해외결핵환자 및 우물파기 후원

후원금 4185만원 한국JTS에 전달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1월 6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국 JTS 정토회 두북수련원에서 '해외 결핵 환우 의료지원 및 우물파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미소원은 이날 후원금 4185만원을 전달했다. 미소원 회원들은 가정의 경조사가 있을 때 마다 우물파기 후원금으로 150만원과 결핵환자 1인 살리기에 동참하며 15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장유정 이사장은 "정토회의 활동을 응원하며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부하고자 원을 세웠었다"며 "JTS에 대한 신뢰로 도반들이 더욱 마음을 내 협조를 했고 좋은 인연을 이어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 11월 6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국 JTS 정토회 두북수련원에서 '해외 결핵 환우 의료지원 및 우물파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법륜 스님은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전해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잘 회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산청 겁외사, 사면불 조성 낙성법회



성철 대종사 생가를 상징하는 조형물 '겁외사 석조사면불' 점안식이 11월 6일 산청 겁외사 입구에서 봉행됐다.

'겁외사 석조사면불'은 너비 3.8m, 높이 6.1m의 입상 형태로 성철 스님의 생가 터인 겁외사 앞에 조성됐다. 석조사면불은 남과 북, 영호남의 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으며 동쪽에는 약사불, 서쪽은 아미타불, 남쪽은 미륵불, 북쪽은 석가모니불로 조성됐다.

점안식에는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 산청사암연합회 회장 수완 스님, 해인총림 유나 원타 스님, 산청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재근 산청군수,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박우범 경남도의원, 윤태중 금강조각연구소 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양사, 산신 다례재 봉행

울산 함월산 백양사(주지 산옹)가 11월 6일 대웅전 앞에서 '산신 다례재'를 봉행했다.

백양사는 매년 지역발전과 국태민안을 발원하는 산신재를 봉행해왔으며 올해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차인들이 연합으로 차를 올려 장엄함을 더했다. 특히 백양사는 올해 3월 산신각과 108 계단 불사를 회향하며 새로운 기도처를 조성한 바 있다.

산신 다례재에는 울산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수덕사 유나 천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박성민 국회의원,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산신 다례재는 △개회 △명종 △내빈소개 △삼귀의례 △반야심경 △육법공양 △108헌다 △내빈헌다 순으로 마무리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